

무급휴직자 6개월간 月120만원 받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르면 5월부터 시행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르면 5월부터 한 달에 최대 12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지난 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해 23일 공포됨에 따라 2월 중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해 4월2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를 거쳐 실제 지원대상 사업장과 근로자가 선정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전망이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을 고용유지지원금으

로 지원했지만,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임금을 한 톨도 받지 못하고 휴업·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최대 6개월간 720만원의 생계비를 보장받게 된 셈"이라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에 고용부는 8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3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근로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노동위원회

에 무급휴업 승인을 받거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법이 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사업주가 경영 정상화와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등을 심사해 휴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부는 각 지역고용센터에서 '무급휴업·휴직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지원 여부와 수준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소기업 지원·사회공헌 매진” 광주銀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5일 오전 광주은행본점 3층 대강당에서 송기진 은행장과 임원, 부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는 지난 2012년 사업실적을 분석하고 우수한 실적을 거둔 영업본부 및 부점에 대한 시상과 2013년 경영목표와 전략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부서의 추진전략을 발표해 구체적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임직원들의 각오를 다졌다. 송기진 행장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움 속에서 모든 임직원들의 단결과 조직력으로 극



광주은행은 지난 25일 오전 본점 3층 대강당에서 2013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복하고 성과를 보였다”며 “올해는 적 금융지원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고객이 행복한 은행 만들자” NH농협銀 노사상생 론칭대회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고대순)가 지난 26일 전남농협 2층 대강당에서 지역 내 사무소장 등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이 행복한 은행 만들자 노사상생 론칭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고대순 농협은행 전남본부장과 주재범 전남 노동조합 본부장은 ‘노사상생 선언’을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간 적극 협력해 고객이 행복한 은행을 만들자고 선언했다. 또 지난해 종합업무 우수 사무소와 우수한 실적을 올린 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통해 지난 1년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나주시지부(지부장 최명수), 강진군지부(지부장 김종인), 전남영업본부(부장 김양권), 동순천지점(지점장 이윤기), 목포2호광장지점(지점장 서정용), 여수센트럴지



지난 26일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고대순)가 전남농협 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이 행복한 은행 만들자 노사상생 론칭대회’를 개최했다.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제공)

점(지점장 차경성)이 종합업무 1위를 달성해 우수 사무소로 뽑혔으며, 강성숙(복순천지점), 한수정(동광주지점) 등 7명이 우수사원에 선정됐다. 고대순 본부장은 “농협은행 출범 1주년을 맞아 더욱 고객에게 다가가는 등 전남금융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직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신나는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농협은 재벌 “상호출자제한 정당”

농협은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공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5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농협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가 41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고 2011년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8조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농협중앙회의 계열회사가 영리법인으로서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차별 없이 경쟁하는 점에 비추면 공정위의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3월 농협이 경제지주와 금융지주 분리를 따라 농협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며, 농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연남뉴스

기아차 작년 매출·영업이익 사상최대

47조2429억·3조5223억원 실적...4분기 영업이익은 엔고에 반토막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연간 실적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원화 강세와 광주공장의 증축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는 지난 25일 기업설명회(IR)에서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47조2429억원, 영업이익 3조5223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9.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0.7% 증가했다. 세전이익은 5조1641억원, 당기순이익은 3조8647억원으로 각각 9.4%, 9.8% 증가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전년보다 7.2% 많은 271만9500대를 판

매했으며 또 중대형차 판매비중이 10.8%에서 14.2%로 늘어난 평균 판매단가가 올라가면서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영업이익은 안정적인 원가구조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세전이익은 중국법인 판매 호조에 따른 지분법 이익 증가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은 관계회사 투자손익 증가와 금융손익 개선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또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으로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100% 밑으로 떨어져 92.3%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1조277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4042억원으로 51.1% 감소했다. 기아차는 현대차보다 해외 공장 생산

이 적은 터라 원화 강세의 타격을 더 크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3분기 노조 파업이 4분기의 글로벌 재고 부족으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10월 한 달여간 스포티지R과 쏘울을 혼용 생산하는 광주 2공장이 증축공사를 해 공급이 더 부족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말 세계 최대의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2012 세계 100대 브랜드’에서 전년 대비 50% 상승한 40억8900만 달러(4조6000억원)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 87위에 오르며 처음으로 세계 100대 브랜드에 진입한 바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화 비정규직 2043명 정규직 전환

한화그룹이 10대 그룹 중 처음으로 비정규직 해소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대기업의 고용분담과 상생 노력을 당부한 이후 나온 첫 반응으로 재계에 미치는 파장을 걱정으로 전망된다. 한화그룹은 27일 비정규직 직원 2043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호텔·리조트 서비스 인력, 백화점 판매사원, 지역 시설관리 인력, 고객상담사 등에 종사하는 계약직 사원이다.

계열사별로는 한화호텔&리조트가 725명으로 가장 많고 한화손해보험 533명, 한화63시티 209명, 한화갤러리아 166명 등이다. 이 가운데 여성이 1200여명으로 60%에 달한다. 여기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해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인력도 포함됐다. 다만 의식, 경비 등 외주 사업 계약업체 소속의 파견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화그룹은 계열사별로 각 비정규직 직원의 평가를 거쳐 전환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3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다.

이로써 한화그룹 비정규직 직원은 50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전체 임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도 17%에서 10.4%로 내려가게 된다. 이번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정규직처럼 복리후생, 정년 보장, 승진 기회를 보장받는다.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은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처음이다. 한화그룹은 이를 계기로 상시·지속성 관행을 없애고 정규직을 채용 늘리기로 했다. /연남뉴스

중소기업진흥공 ‘으뜸e 대학생 기자단’ 100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현장을 취재해 홍보하는 ‘으뜸e 대학생 기자단’ 100명을 모집한다. 대학생 기자단은 중진공이 선정한 ‘으뜸중소기업’을 방문한 뒤 스토리텔링과 취재담화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 SNS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으뜸기업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500여 사를

선정한다. 글쓰기와 사진촬영에 관심이 있고, SNS를 열성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생(예비대학생포함)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지원자에게는 공식명함과 취재 활동비를 지급한다. ‘스마일스토리’ (smile-story.or.kr) 웹사이트에서 28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로또복권 (제530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6	23	27	29	33	41	2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231,656,239	11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6,450,911	40			
3	5개 숫자 일치	1,558,342	1,449			
4	4개 숫자 일치	50,000	75,595			
5	3개 숫자 일치	5,000	1,255,300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기적중얼거라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구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Canon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